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吏讀

高 正 儀

I

淨兜寺造塔記는 高麗時代의 散文形式으로 된 吏讀 資料 중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은 이 造塔記가 文章構成素의 國語 語順에 따른 배열, 訓借字와 音借字를 이용한 虛辭表記, 訓借字의 表音字로의 轉用, 訓讀 語末形態表記 등 後世까지 내려온 散文表記法의 모든 規則을 다 보여줌으로써 高麗時代의 漢字借用 散文表記法이 이 시기에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

이 造塔記는 京釜線 鐵路 건설 공사중 若木驛²⁾ 東北에 있던 廢寺인 淨兜寺址의 塔 基石 속에 보관되어 있던 佛舍利를 담은 鑰製合 안에서 발견되었다.³⁾ 이 造塔記는 대체로 楷書로 쓰였으나 간혹 特異한 字體가 있어 判讀에 어려움이 있다. 全文은 54行으로 되어 있고⁴⁾ 총 1,600餘字에 이르고 있다.

淨兜寺造塔記에 대한 判讀과 아울러 全文을 검토 해설한 것으로는 前間恭作(1926), 鮎貝方之進(1934)이 있고, 南豐鉉(1975a, 1975b, 1981)에서 부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前間恭作(1926)과 鮎貝方之進(1934)의 두 判讀에는 차이가 있고 誤讀된 곳도 있다. 그리고 解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본고는 가능한 한 이 造塔記의 정확한 판독을 제시하고⁵⁾ 年次에 따라 기

- 1) 南豐鉉(1977: 66)참조. 高麗時代의 자료로 비교적 풍부한 吏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 造塔記(1031)외에 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941), 太平二年銘磨崖藥師坐像(977), 開心寺石塔記(1010) 通度寺國長生石標(1085), 利義寺飯子(1224), 至元 18年奴婢文書(1281), 至正 14年 奴婢文書(1354), 白巖寺貼文(1357 및 1378), 洪武 23年 奴婢文書(1390) 등이 있다.
- 2) 若木은 慶尙北道 倭館과 龜尾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 3) 前間恭作(1926) 참조. 이 논문은 造塔記의 內容을 解說한 최초의 글이다.
- 4) 이 造塔記의 文書와 容器寫眞은 朝鮮古蹟圖譜(第六)에 실렸고, 前間恭作(1926)에는 이의 複寫寫眞이 실려있다. 최근 朝鮮古蹟圖譜를 景仁文化社에서 간행하였다.
- 5) 筆者가 본 자료는 前間恭作(1926)과 景仁文化社의 複寫本이었다. 그러나 字體의 特異性이나 不明確한 상태의 複寫라는 制約으로 筆者가 정리한 것도 尙前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록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文記의 吏讀 용례들을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II

淨兜寺造塔記의 全文을 原文의 行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原文의 行의 순서이고, 下線은 吏讀의 용례임을 나타낸다)

- 1 大平十一年歲次辛未正月四日高麗國尚州界知京山府事任若木郡內巽方在淨兜寺五
- 2 層石塔造成形止記
- 3 郡百姓光賢亦天禧三年己未十月日
- 4 國家朝業長興鴻基永固保遐齡於可久延寶祚於無疆長吏等賴此妙因憑斯善
- 5 事災殃不染福壽增長處處同歡人人樂業隣兵電滅上
- 6 國益安百穀豐登萬民和泰郡內老小男女百姓等延年益壽致福消災永保安寧
- 7 恒居娛樂三界迷魂四生惡業承茲造塔愍得生天之願以石塔五層乙成是白乎願
- 8 表爲遣成是不得爲乎天禧二年歲次壬戌五月初七日身病以遷世爲去在乙同生兄
- 9 副戶長稟柔亦公山新房依止修善僧覺由本貫壽城郡乙繼願成畢爲等勸善爲
- 10 食佰貳石并以准受令是遣在如中郡司戶長仁勇校尉李元敏副戶長應律李成稟
- 11 柔神彥戶正宏運副戶正成憲官史光榮等太平三年癸亥六月日淨兜寺良中安置
- 12 令是白於爲議出納爲乎事亦在乙善州土⁶⁾集塌院主人員元伯土本貫義全郡
- 13 乙白歙寺良中立申土向行千三百步到阿干山金直田筒亦中同年十一月六日元
- 14 伯土身寶衆三亦日日以合夫參佰肆拾捌并以石乙良第二年春節已只了兮齋遣成是
- 15 不得爲犯由白去乎等用良又右長亦僧智漢郡禪院依止本貫同郡乙勸爲太
- 16 平五年歲次乙丑三月十二日食拾參石太平六年歲次丙寅十月日米伍拾肆石乙准受
- 令是
- 17 遣在如中加于物業乙計會爲太平七年歲次丁卯十二月日隨願僧侶等一千余人
- 18 乙戶長柳瓊在徒副戶長承律右徒例以分析爲弥日日以石運已畢爲太平九年己巳口
- 19 月日右伯土乙仍請爲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爲內歙寺之段司
- 20 倉上導行審是內乎癸七十六是去丙辰年量田使前守倉部卿藝言下典奉休
- 21 算土千達等乙巳二月十五日宋良卿矣結審是乎導行乙用良顯德三年丙辰三月日練
- 22 立作良中代下田長廿七步方廿步北能召田南東渠西葛頸寺田承孔伍佰肆拾結得
- 23 肆拾玖負肆東同寺位同土犯南田長拾玖步東三步三方渠西文達代承孔百四
- 24 結得玖負伍東右如付量有在等以地理延囑僧八居縣土陸村乙占定令是乎味投郡
- 25 司戶長別將柳瓊攝戶長金甫戶正成允副戶正李希書者承福等太平十年歲次庚午十
- 二月七

6) 「土」는 독특한 字體로 표기되었다.

- 25 日晷以寺代內應爲處追于立是白乎味了在乎等用良同日三實內庭中乙定爲在乎事是
- 27 等以月十二日正位割隊正嵩岳式英⁷⁾ 一品軍作隣廿一人亦掘取五尺石築十尺方良中排立令是
- 28 白內乎矣玄風縣北面觀音房主人貞甫長老陪白賜乎舍利一七口乙 京山府土處藏寺主
- 29 房承長老亦今月一日陪到爲賜乎事亦在等以本來琉璃筒一鎗合一重二兩亦中 安邀爲白
- 30 弥右文記并以又鎗合一重拾貳兩參目良中邀是白內叱乎亦在弥石練時乙順可只而今良
- 31 中至兮天原寺主大師青允金剛寺主大德釋令芳允寺主重職注祚禪院主人懷闡
- 32 道俗寺主賢朗普沙寺主讓賢大乘寺主彥融金莫寺主元慶蓮長寺主智善金
- 33 安寺主法眞京山府土等各食臺石⁸⁾ 般若寺主得名光 ⁹⁾ 食參石禪院依止僧連育米臺石
- 34 副戶長肯禮□¹⁰⁾ 宏戶正成允漢器正雄憲眞漢副兵正元行等 乞供納米拾柒石拾斗¹¹⁾ 志興郎葵
- 35 壹石柴匠信貞上京布卅尺智奉寺 主大師曼光布十五尺副戶長 稟米參石拾斗齋五度
- 36 麻壹过般若寺主光由戶長柳瓊散員積宣儲寺主人幸僧等各麻壹过鎗匠居等達
- 37 鎗合壹重貳兩副戶長肯禮兵正佐宜戶長柳瓊神彥妙興寺主覺由金剛寺主般若寺
- 38 主蓮長寺主道俗寺主禪院主人天原寺主備川寺主貞宏新房主賢采婦佛寺主
- 39 神憶副戶長承律副正元白智白師行順男等各一度齋仙石寺主二度齋隊正式英
- 40 四度齋戶正成允漢器并一度齋繡帳寶廉富女等齋一度官史元道洪漢并齊一度
- 41 乘由師得賢并齋一度金昕英他并齋一度戒仁哀內金富多支金助烏并齋
- 42 一度普沙寺忠寺并齋一度德積奴一時齋新達男一時齋三孝男一時齋京稱長
- 43 老殷述能光金漢多支富助烏舍富等齋一度酒二香知白英他戶正成允等各餅壹
- 44 合副戶長賢質酒一香餅一合允孝新達并酒一香戶長神彥酒二香汁火寺主人賢京
- 45 玉滿寺主元京陽岳寺主智黃等各茶酒菜炙李言男酒一香樂人式長等拾伍人
- 46 茶酒菜炙吉奉男哀好大娘并餅一合助烏厄明并餅一合酒一香量民哀助烏并餅
- 47 一合酒一香能名孝德英金明烏今厄等并酒一香用德女等酒參斗玉滿寺主英質副
- 48 正處忠并酒參香大內義娘布卅尺
- 49 右如隨願爲在乎事亦在
- 50 院主僧惠元骨廻寺 福光本貫善州

7) 「英」도 아니고 「莫」도 아닌 독특한 字形이나 편의상 「英」으로 읽는다.

8) 이하 「石」은 전부 略字로 기록되었다.

9) 鮎貝方之進(1934)은 「獸」의 잘못으로 보았다.

10) 不明하여 판독을 보유했.

11) 이하 「斗」는 略字로 기록되었다.

4 울산어문논집 제 3집

- 51 史二 眞行沙彌 本貫若本郡
- 52 成密沙彌 本貫善州
- 53 金徒僧妙孝 長只縣 鐵匠會文同郡
- 54 鐸廿六棟梁僧法光

이상이 造塔記의 全文이다. 이제 위의 判讀과 前問恭作(1926), 鮎貝方之進(1934)와의 것을 비교하여 그 차이나는 것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行	前問恭作	鮎貝方之進	筆 者	備 考
1	大平十一年	太平十一年	大平十一年	
6	國益安	國益安	國益安	鮎貝는 ‘益’이 ‘濫’과 通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濫’과 通하고 이러한 用例가 드물어 ‘益’으로 읽는다
	老少男女	老少男女	老少男女	
7	承茲造塔	承慈造塔	承茲造塔	
	石塔五層乙	石塔伍層乙	石塔伍層乙	鮎貝는 ‘佳’를 ‘淮’의 잘못으로 보았다.
10	淮受	佳受	淮受	
11	(누락)戶正	戶正宏運副戶正	戶正宏運副戶正	
12	(?)	善州土	善州土	
13	本貫	木貫	本貫	
14	參佰肆拾捌	三百四十八	參佰肆拾捌	
	了兮聞遣	了兮齊遣	了兮齊遣	
17	一千餘人	一千餘人	一千余人	
18	已畢	已畢	已畢	
	己巳七月	己巳口月日	己巳口月日	
20	行審是白乎矣	行審是內乎矣	行審是內乎矣	
24	法村	法村	法村	33行의 ‘法眞’의 ‘法’과 비교됨
25	成允	成久	成允	
27	式英	式英	式英	
	作英等廿一人	作英等廿一人	作英廿一人	12行 ‘貞元’의 ‘貞’과 비교됨
28	眞甫	眞甫	貞甫	
30	右文記并以	文記并以	右文記并以	
38		柔倦寺主	婦倦寺主	
47		孝德英明烏	孝德英金明	

III

이 造塔記는 內容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塔의 建立 始末에 관한 것이고(1行~30行 ‘彌’까지) 하나는 喜捨한 人物들의 이름

과 喜捨品目を 列記한 것이다.

이제 이 造塔記를 年次에 따라 分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大平十一年歲次辛未正月四日高麗國尚州界知京山府事任若木郡內巽方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이것은 淨兜寺造塔記가 작성된 年月日을 밝힌 것으로 實用文 冒頭의 套式이다. 金石文에서는 俗文인 경우 年次가 俗體로 나오고 雅體로는 안 나오는데 이 文記에서는 歲次干支가 쓰이고 있다.

「大平十一年」은 西紀 1031年 高麗 顯宗 24年이다. 「大平」은 「太平」으로 遼의 聖宗의 年號이다.

「巽方」은 24方位 중 東南方을 가리킨다. 이 冒頭의 기록에서 이 塔이 1031년에 건립되었고 위치가 若木郡東南方에 있었던 淨兜寺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郡百姓光賢亦天禧三年己未十月日 國家霸業長與鴻基永固保齡於可久延寶祚於無疆長吏等賴此妙因憑斯善事災殃不染福壽增長 處處同歡人人樂業隣兵電滅上國益安百穀豐登萬民和泰郡內老小男女百姓等延年益壽致福消災永保安寧 恒居娛樂三界 迷魂四生惡業承茲造塔愆得生天地願以石塔伍層乙成是白乎願表爲遺成是不得爲乎

이것은 郡百姓인 光賢이란 者가 天禧三年己未十月 日 즉 高麗 顯宗 10年 (1019)10월에 국가의 平安과 백성의 和泰등을 祈願하여 五層石塔을 이룰 願을 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²⁾

「光賢亦」의 「亦」은 主格語尾 「-이」에 대응된다. 主格的 「-이」가 「亦」으로 나타난 것은 이 造塔記가 처음이었다. 前間恭作(1926)과 鮎貝方之進(1934)은 전통적 독법에 따라 「여」로 읽었는데 「亦」은 「-이(主格), -여, -이(副詞派生接尾辭)」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¹³⁾ 따라서 「光賢亦」은 「光賢이, 光賢이가」의 뜻이다. 洪武 23年(1390)의 奴婢文書에서는 「伊」가 쓰였으나 大明律直解(1395)에서는 「亦」이 쓰였다. 「亦」이 主格語尾 「-이」로 쓰인 것은 「亦」의 音이 中國標準音인 北京音으로 「-i」였음을 고려하면(B. Karlgren

12) 主格表記로는 安民歌, 慧星歌에서는 「是」가 쓰였다. 普賢十願歌와 處容歌에서는 「伊」가 쓰였고 朝鮮朝의 呂氏鄉約諺解와 地藏經의 口訣에서도 「伊」가 쓰였다. 高麗朝의 散文表記에서는 「亦」이 쓰였다. (南豐鉉 1977: 75)

13) 「亦」이 15세기의 「-이」와 「-여」에 대응하는 사실은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1966) 中世國語의 主格 「一이」와 관련시켜 볼 때 「一이」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主格 「亦」의 용례로 「剖戶長稟柔亦, 象三亦, 右長亦」 등이 보인다.

「願以」의 「以」는 造格語尾 「一(으/오)」에 해당되는 訓假字이다. 따라서 「願以」는 「願으로」로 풀이된다. 「以」의 용례로 「身病以, 日日以, 牒以」 등의 예가 보인다. 그런데 「以」는 造格에만 쓰인 것은 아니어서¹⁴⁾ 「始發」의 「一로」로도 쓰였다.¹⁵⁾

「石塔伍層乙」의 「乙」은 對格語尾 「一(으/오)」이다. 對格語尾는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吏讀로는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 造塔記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乙」의 用例로는 「覺由本貫壽城郡乙, 貞元伯士本貫義全郡乙, 僧智漢郡禪院依止本貫同郡乙, 一千餘人乙, 右伯士乙, 千達等乙, 延囑僧八居縣士陔村乙, 三寶內庭中乙, 舍利一七口乙」등 많은 예가 보인다. 이러한 對格語尾의 용례는 이 造塔記가 이루어진 11世紀初 以前에 이러한 표기가 상당히 일반화되었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 「乙」의 用例로 보아 「願表爲遣」는 「願乙表爲遣」와 같이 표기될 수 있는 것인데, 形態部의 「乙」이 생략된 것이다.

「成是白乎」의 「是白乎」은 「이 읍은」으로 읽는다. 따라서 「成是白乎」는 「일이 읍은」으로 읽는다. 의미는 「이루울」로 해석된다.

「願表爲遣」의 「爲遣」는 中世國語의 「一고」에 대응된다. 前問恭作(1926)은 「고」로, 鮎貝方之進(1934)은 「고견」으로 읽었다. 「爲」는 訓讀으로 「하」에 해당되지만 「遣」이 「고」에 대응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考究를 요한다. 「遣」은 羅麗吏讀, 儒胥必知, 吏文 등에서 전통적으로 「고」로 읽고 있으며 鄉歌에서 자주 쓰인 것으로 보아 「遣」이 「고」로 쓰인 전통은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보인다. (南豐鉉 1974) 지금까지의 자료로서는 이 造塔記가 「遣」이 두에서 쓰인 最古의 예를 보여준다

「成是不得爲乎」의 「是」는 訓假字로 「一이」로 읽는다. 「不得」은 「모달」(吏

14) 「以」는 造格과 向格으로 쓰이거나 副詞化接尾辭로 쓰였다. 古代부터 高麗末까지는 「以」로 一貫했고 普賢十願歌엔 「留」가 쓰였다.

手良每如法吃供乙留(廣修供養歌)

15) 國朝以誅流員將矣奴婢等乙…(松廣寺奴婢文書)

文); 「모질」(儒胥必知) 등으로 읽혀 전통적으로 「모질」에 대응한다. 「乎」는訓借로 先語末語尾와 動名詞語尾의 결합 「一은」으로 읽고 動名詞로 새긴다. 따라서 「成是不得爲乎」은 「이루지 못한바」로 해석된다.

天禧二年 歲次壬戌五月初七日 身病以遷世爲去在乙同生兄副戶長稟柔亦公山新房依
止修善僧覺由木貫壽城郡乙繼顯成筆爲等勸善爲食佰貳石并以 准受令是遣在如中

「天禧二年」은 위의 「歲次壬戌」로 미루어 보면 「六年」의 잘못된 듯하다. 이렇게 보면 이는 1022년의 일에 대한 내용이다.

「身病以」의 「以」는 訓假「一로」에 대응한다.

「爲去在乙」의 「去」는 「一거」에 대응된다. 이때 先語末語尾 「去」字의 起源이 音讀보다 訓讀에서 왔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¹⁶⁾ 즉 「去」의 訓으로 「가」와 「거」가 共存했었기 때문에서이다. 「在乙」은 「견을」로 읽는다. 「在」는 儒胥必知, 吏文, 羅麗吏讀 등에서 모두 「견」으로 읽어 왔다. 이것은 15세기의 「겨시一(在)」가 化石化되기 이전의 「겨一(在)」와 動名詞語尾 「一는」이 結合된 것이다(小倉進平, 1929; 李基文, 1972) 「在」는 新羅統一 以前부터 高麗時代까지 주로 쓰인바, 「在乙」은 後世의 「잇거늘」과 같은 뜻으로 現在完了時相을 나타낸다(南豐鉉, 1974). 「爲去在乙」은 「햏야가견을」로 읽는다.¹⁷⁾ 의미는 「하엿거늘」이다.

「爲等」은 「훈돌」로 읽는다. 鮎貝方之進(1934)은 「等」을 「爲去等(햏거든), 是乎等以(이은뜰노)」에서와 같이 「一든, 一뜰」로 읽었는데 이는 結果를 나타내는 形式名詞 「드」에 對格助詞 「一르」이 첨가된 것으로 「뜰」로 읽는다. 그리고 「爲」는 「等」을 수식하는 것이므로 「훈」으로 읽어야 된다. 「爲等」의 의미는 「할 것을」로 풀이된다.

「勸善爲」의 「爲」는 鮎貝方之進(1934)는 「햏야」로 읽었으나 前問恭作(1926)은 讀法을 보이지 않았다. 文脈으로 보아 「햏야」로 읽어야 된다.

「并以」는 儒胥必知, 吏文 등에서 「아오로」로 읽혀 왔다. 「아오로」는 語根

16) 南豐鉉(1974) 참조.

17) 前問恭作(1926)은 「ha-ya-ka-kyon-ür」로 읽고 「하얏기 때문에」로 해석하였다. 鮎貝方之進(1934)는 讀法을 보이지 않고, 爲去乙(햏거늘) 爲有去乙(햏거거늘) 爲在乙(햏견을)의 例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合, 并)」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함해진 것으로 「并以」가 吏讀에 나타난 것은 淨兜寺造塔記가 처음이다, 이보다 앞의 記錄에선, 「并」字 單獨으로 쓰였다.¹⁸⁾ (南豐鉉 1974) 의미는 「아울러(서)」이다. 다른 예로 「文記并以」의 용례가 보인다.

「准受令是遣在如中」의 「准受」는 一定한 基準대로 바친다는 「準納」의 뜻이다. 「令是遣」는 「시기고」로 읽는다. 「令是」는 中世國語의 「시기」에 대응한다. 그런데 「令是」는 三國, 新羅時代엔 「令」단독으로 쓰였고 941년의 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에서도 「令是」는 보이지 않는다.¹⁹⁾ 이로 보아 「令是」와 같이 「令」이 「是」를 同伴하여 나타난 것은 11世紀에 들어와서인 듯하다(南豐鉉 1974). 현재의 자료로는 이 淨兜寺造塔記의 용례가 最初의 것이다. 「在」는 前出한 대로 「견」으로 읽는다. 「如中」은 儒胥必知, 吏讀便覽 등에서 「다히」로 읽혀왔다. 따라서 「令是遣在如中」는 前問恭作(1926)과 같이 「시기고견다히」로 읽는다. 의미는 「시키고 있던 중에」로 풀이 된다.

그런데 이 句節은 內容上 1019年 光賢이 塔을 세우고자 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뒤의 일이므로 年代가 1019年 以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文記의 記錄은 天禧二年(1018)으로 되어 있어 年代의 錯誤가 보인다. 그러므로 光賢이 遷世한 해는 뒤의 年次인 「壬戌五月」로 보아 「天禧二年」이 아닌 「天禧六年」이 맞을 것이며, 이렇게 推定한다면 그는 1022年 그러니까 塔을 세우고자 한 지 3년 뒤에 死亡하였음을 알 수 있다.

郡司戶長仁勇校尉李元敏副戶長應律李成稟柔神彥戶正宏暹副戶正成憲官吏光策等
太平三年癸亥六月日淨兜寺良中安置令是白於爲議出納爲乎事亦在乙善州土集堀院主
人貞元伯士本貫義全郡乙白弥寺良中立申士向行千三百步到阿干山金直田筒亦中

「大平三年」은 1023年 顯宗 14年이다.

「淨兜寺良中」의 「良中」은 處格語尾 「一에, 一에서, 一에게」에 대응하는 것으로 「아히」로 읽는다. 儒胥必知, 吏文, 羅麗吏讀等에서 모두 「아히」로 읽

18) 二人并舊記(壬申舊記石)

并遊友妹麗德光好於史郎安郡(川前里書石)

그런데 川前里書石에는 ‘并’과 함께 ‘共’도 나타난다.

三共遊來以後

國家口山院名并十四州郡縣契乙用…(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

19) …山院名并十四州郡縣契乙用成造令賜之(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

어 왔다. 「良中」이 處格語尾로 쓰인 것은 이 造塔記가 처음이다(南豐鉉 1974).

「令是白於爲」는 前間恭作(1926)은 「시기숭어삼」으로, 小倉進平(1929)은 「시기숭어ㅎ」로 읽었고 鮎貝方之進(1934)는 讀法을 보이지 않았다.²⁰⁾ 南豐鉉(1974: 18)에서는 「令是白於爲」의 「於」를 挿入母音「오/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良於爲」가 當爲性을 강조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짐을 들 때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¹⁾ 前間恭作(1926)은 「하게 하여 올리는 일에」로 풀이하였고 종래의 견해는 「하려고 한다」로 파악하였었다. 文脈上으로 보아 當爲의 「시키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出納」은 南豐鉉(1974)에서 밝힌 바와 같이 「審議決定」을 의미하는 官衙에서 쓰던 特殊用語로 韓國化한 단어이다.

「爲乎」는 中世國語의 「ㅎ은, 혼」에 대응되며 「한, 한 바」의 뜻이다. 여기서 는 뒤의 「事」가 체언이므로 관형형 「한」으로 읽어야 된다.

「事亦在乙」의 「亦」는 「여」로 읽고 「在乙」은 前出한 바와 같이 「견을」이므로 「亦在乙」은 「여견을」로 읽는다. 의미는 「-이 있거늘」의 뜻이다. 그런데 이때의 「在」는 存在를 나타내는 動詞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事」는 명사이므로 이는 「事亦(일여)」와 「在乙(견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²²⁾ 「事」는 전통적으로 「일」로 訓讀하였고 「일, 案件, 處事, 것」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 구절의 뜻은 「한 일이 있거늘」로 풀이 된다.

「貞元伯士乙」의 「乙」은 對格語尾「-ㄹ(ㄱ/ㅇ)」이나 여기서는 문맥상 與格「-에게」의 의미이다. 따라서 「貞元伯士에게」로 해석된다.

「白弥」의 「弥」는 音假字로 「-며」에 대응된다. 前間恭作(1926)에서는 「貞元伯士乙白弥」에서 「乙白弥」를 「을숭며」로 읽고 「-에게 여쭙고」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乙」은 「貞元伯士」에 연결된 格語尾로 「貞元伯士에게」의 의미

20) 941年の 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란 하여도 치적으로 「中」만이 쓰였다.

僧矣段赤牙縣鷲山中新處口元聞爲...

加知谷中入成造爲賜毋亦之

21) 이러한 용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乙丑五月日曆前立口是於爲了等以立(象川里國長生石標)

乙丑五月日曆前克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通度寺國長生石標)

22) 따라서 여기서의 「在乙」은 NP[事亦]에 대한 VP가 된다. 그러나 「在乙」이 語尾 「-거늘」로 쓰인 경우에는 동사뒤에 직접 연결되었다.

이지만 「白弥」의 「白」은 「여쭙다」의 의미인 動詞 「畵一」으로 읽어 「白弥」는 「술부며」로 읽어야 된다.

「亦中」은 「여히」로 읽는다. 羅麗吏讀에 「此亦中」을 「치여히」로 儒得必知에 「爲白乎弟亦中」을 「ㅎ숭제여히」로 읽은 예가 보인다.²³⁾ 여기서의 「亦中」은 興格語尾 「-에게」에 대응한다. 이 造塔記에는 이 외에 「瑠璃筒一鎗合一重=兩亦中」과 같이 「亦中」이 處格으로 쓰인 예를 보여준다.²⁴⁾

同年十一月六日元伯士身賣衆三赤日日以合夫三百四十并以石乙良第二年春節己只了兮齊遣成是不得爲犯由白去乎等用良又右長亦僧知漢那禪院依止本貫同郡乙勸爲

「同年十一月六日元伯士」에서 「元」을 보는데는 두 가지 見解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前間恭作(1926)에서와 같이 「元」을 「貞元伯士」의 省略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견해는 「元」을 「비릇-」으로 보는 것이다. 「元」을 「비릇-」으로 읽은 것은 南豊鉉(1975a)에서이다. 이 구절은 탑을 建立하는 작업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므로 문맥상으로 ‘언제부터 작업이 개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元」을 「-부터」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石乙良」의 「乙良」은 「-(으)란」에 대응된다. 이것은 目的格 「乙(은)」과 主題化添辭 「良(란)」의 複合으로 발달한 것이다.

「己只」는 前間添作(1926)에서는 「드록」으로 鮎貝方之進(1934)에서는 「까지」로 읽었다. 吏讀集成에는 「까지」로 읽었다. 音假字로 보아 「까지」로 읽는다.

「了兮齊遣」의 「了兮」를 前間恭作(1926)은 「다하리」로 읽었고 鮎貝方之進(1934)는 「了」를 「다안」으로 읽었다.²⁵⁾ 「了兮」를 「다하리」로 읽으면 「了兮齊遣」는 「하하리저고」로 읽어 「다하리라하고」로 풀이된다.²⁶⁾

23) 그런데 儒得必知에는 「是白在亦中」을 「이숭전다히」로 읽은 예가 보인다. 同書에서는 「爲白在如中」을 「ㅎ숭전다히」로 「爲乎弟如中」을 「ㅎ은제여히」로 읽어 「如中」에 대한 讀法에도 혼란이 보이나, 「如中」은 吏文, 吏讀(便覽)등에서는 모두 「다히」로 읽고 있다.

24) 「亦中」은 「良中」과 더불어 모두 이 造塔記에서 처음 나타난다. 慈寂禪師凌雲塔碑陰記에서도 「中」으로만 나타났던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총 58에 중 時間辭에 연결된 3에를 제외하고는 모두 有情名詞에 연결되어 興格을 나타내고 있다. (南豊鉉 1974)

25) 「了」가 「다안」으로 읽힐것은 吏讀(作者年代未詳의 吏讀集)에서이다(劉昌惇 1964)

26) 南豊鉉(1974)에서는 “完了하엿고”로 풀이하고 뒤의 「成是不得爲(이루지 못한)」의 目的語로 「塔」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齊」는 終結語尾로 다루어져왔다(梁柱東 1965, 小倉進平 1929, 池憲英 1974).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齊」와 「遣」의 연결관계는 재고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成是不得爲」의 「是不得爲」는 「一이모딜항아」로 읽는다. 의미는 「이루지 못한」으로 풀이된다.

「犯由」를 前間恭作(1926)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나 「經緯」의 의미이다.

「白去乎等用良」는 「숲아가온돌쓰아」로 읽고 「아되었음으로(써)」의 뜻으로 해석한다. 「用良」은 중세국어의 後置詞「一때」에 해당된다. 「用良」은 目的格만을 지배한다(南豐鉉 1974) 「等」은 「돌」로 읽히는데 形式名詞 「ㄷ」와 對格語尾「一(으/으)ㄴ」의 결합으로 본다. 形式名詞 「ㄷ」는 結果를 나타내므로 「等用良」는 「…結果로써, …結果에 의해서」의 뜻으로 풀이된다.

「右長亦」에서 「右」를 前間恭作(1926)은 「이마」로 읽었으나 「右」가 吏讀인지 아닌지가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漢字 「右」로 읽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太平五年歲次乙丑三月十二日食十三石太平六年歲次丙寅十月日米伍拾肆石乙准受令是遣在如中 加于物業乙計會爲

「太平五年」과 「六年」은 1025년과 1026년으로 顯宗 16, 17년에 해당된다.

「加于」는 더욱(儒胥必知) 더욱(吏文) 더우어(羅麗吏讀) 등으로 읽힌 것으로 「더욱」으로 읽는다.

「計會爲」의 「爲」는 「ㅎ」로 읽고 「하여」로 풀이한다.

太平七年歲次丁卯十二月日隨願僧侶等一千余人乙戶長柳瓊在徒副戶長承律右徒例以分折爲於日日以石運已畢爲

「例以」를 前間恭作(1926)은 「례로」로 읽고 「지극히, 一로 대단히」로 풀이하였으나 「例」는 ‘法式’ 혹은 ‘前例’와 통하므로 「례로(써)」로 읽어 「前例 혹은 法式대로」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문장에서도 「左徒」와 「右徒」가 나오므로 작업을 두 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²⁷⁾

27) 左徒右徒의 二徒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한 기록은 中初寺幢竿石柱記에도 보인다.
同月廿八日二徒作初奄九月一日此處至

太平九年己巳七月日右伯士乙仍請爲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爲內弥寺之段司倉上導行審是內乎矣

七十六是去丙辰年量田使前守倉部卿龔言下典奉休算士千達等

乙卯二月十五日宋良卿矣結審是乎導行乙用良

顯德三年丙辰三月練立作良中代下田長廿七步北能召田南東渠西葛頸寺田承孔伍佰肆拾結得肆拾玖負肆束同寺位同土犯南田長拾玖步東三步三方渠西文達代承孔百四結得玖負伍束右有如付量有在等以地理延囑僧八居縣土法村乙占定令是乎味投

「太平九年」은 西紀 1029年 顯宗 20年이다.

「念丁」은 吏叢集成에는 「까장」으로 읽혔다. 梁柱東(1965)에서는 「念」의 俗訓「국정(겨정)」과 관련시켜 「자장」으로 읽었다.²⁸⁾ 그런데 小倉進平(1929)에서는 「지나서」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鮎貝方之進(1934)에서는 「念」의 音 「념」과 「行」을 의미하는 동사 「더-」와의 관계에서 「經過」의 의미로 보았다. 앞에서 「까지」의 뜻으로 「근지」가 나왔었으므로 동일한 의미표기에 상이한 형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春秋冬念丁」은 「봄 가을 겨울을 지나」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爲內弥」는 「흐누며」로 읽으며 「하였으며」의 뜻이다. 前間恭作(1926)은 「흐야누며」로 鮎貝方之進(1934)는 「흐누며」로 읽었다.

「之段」은 후치사 「-안」으로 읽는다.

「是內乎矣」는 「이 누오되」로 읽고 「-하시오되」의 뜻이다. 「乎矣」가 「爲」나 「是」 뒤에 연결된 「是乎矣」나 「爲乎矣」 등은 보이거나 「內」가 삽입된 「是內乎矣」는 淨兜寺造塔記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七十六是去」의 「去」는 「간」 또는 「견」으로 읽는다.²⁹⁾ 「七十六이 간」 즉 「76년견」의 의미이다.

「矣」는 屬格語尾로 中世國語의 有情名詞의 屬格「-이/의」에 대응한다.

「是乎」은 「이온」으로 읽는다. 「乎」가 「온」으로 읽힘은 뒤에오는 「導行」이 體言이기 때문이다.

「乙用良」는 「을 쓰아」로 「…結果로써」의 뜻으로 풀이된다.

「右如」는 前間恭作(1926)에서는 「이따다」로 읽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

28) 梁柱東(1965)의 「願往生歌」條 참조.

29) 「去」에 대하여는 南豐鉉(1974) 참조.

미어]로 읽혀온 것이다. 國語語順이 아니면 「如右」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有在等以」는 前問恭作(1926)은 「이견돌로」로 읽었다. 「잇견돌로」로 읽고 「있었던 것으로써」로 풀이한다.³⁰⁾

「令是乎味投」의 「味」는 「맛」, 「投」는 「一도」에 대응하여 「시기온맛두」로 읽는다. 뜻은 「시킨 뜻도」로 풀이된다.

郡司戶長別將柳瓊鑷戶長金甫戶正成允副戶正李希書者承福等太平十年歲次庚午十二月七日牒以寺代內應爲處追于立是白乎味了在在乎等用良同日三寶內庭中乙定爲在乎事是等以月十二日正位剛隊正嵩岳式英一品單作隣廿一人亦狃取五尺石梁十尺方良中排立令是白內乎矣玄鳳縣北面觀音房主人眞甫長老陪白賜乎事舍利十七口乙京山府土處藏寺主彥承長老亦今月一日陪到爲賜乎事亦在等以本來瑠璃筒一鎗合一重二兩亦中安邀爲白弥右文記并以又鎗合一重十三兩三日良中邀是白內口乎亦在弥

「追于」는 좃초(儒必知), 조초(吏文, 吏讀集成) 등으로 읽혀 왔다. 「조초」로 읽고 「따라」의 뜻이다.

「是白乎味」은 「이숯온맛」으로 읽는다. 의미는 「이온 뜻」으로 해석된다.

「了在在乎等用良」의 「在乎等用良」는 「겨온돌쓰아」로 읽는다. 뜻은 「一하여 있는 것으로써」의 의미이다.

「爲在乎事是等以」는 「하야겨온일인돌로」로 읽고 뜻은 「하있는 일인 결과로」로 풀이된다.

「令是白內乎矣」는 「시기숯노오더」로 읽는다. 뜻은 「시키시오더」로 풀이된다.

「陪白賜乎」의 「陪」는 前問恭作(1926)은 「모시一」로, 鮎貝方之進(1934)는 「피실」로 읽었다. 「白賜乎」는 「숯시온」으로 읽는다. 이 句節의 뜻은 「모시온」으로 풀이된다. 「賜」는 尊敬法을 나타낸다.

「爲賜乎事亦在等以」는 「하시온일여견드」로 읽는다. 뜻은 「하시온 일이 있으므로」로 풀이된다.

「爲白弥」는 「하숯며」로 읽고 뜻은 「하오며」이다.

「是白內乎亦在弥」는 「이숯노온여견이며」로 읽는다. 「이온(바)가 있으며」의 뜻으로 풀이된다. 「亦」앞에 「事」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30) 借字 「有」와 「在」의 관계에 대하여는 徐鍾學(1984) 참조.

石練時乙順可只而今良中至兮…(中略)…右如隨願爲在乎事亦在

「乙順可只」를 鮎貝方之進(1934)은 그 아래의 ‘今良中至兮’로 비추어 「一로부터」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文脈上 의미에는 無理가 없으나 앞으로 더 考究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淨兜寺造塔記 중 吏讀와 관계되는 句節의 解讀을 年次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全文의 解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¹⁾

大平 11年 1月 4日 高麗 尚州의 京山府(星州)의 일을 管掌하는 若木郡 안 東南方에 있는 淨兜寺五層石塔을 造成한 事實의 記錄

郡 百姓 光賢이 天禧 3年 10月 日에…願으로 石塔 5層을 이루을 願을 表하고 이루지 못한 바

天禧 6年 壬戌 5月 7日 身病으로 遷世하였거늘 同生인 兄 副戶長 稟柔가 公山新方에 依止하고 있는 修善僧 覺由(本貫 壽城郡)에게 願을 이어 이룰 것을 勸하여 食 200石을 準納시키고 있던 중에

郡司 戶長 仁勇 校尉 李元敏, 副戶長 應律, 李成, 稟柔, 神彥, 戶正 宏進, 副戶正 成憲, 官史 光策 등이 太平 3年 6月 日에 淨兜寺에 安置시키어야 한다고 議論을 審議決定한 일이 있거늘 善州당 集據院主人 貞元伯士(本貫 義全郡)에게 여쭙고 절[淨兜寺를 가리킴]에다 세[우기로 하였다] [所在地는] 西南方으로 向하여 1,300보를 가면 阿干山에 이른다. 金直 田筒에게

同年 11月 六日부터 (貞元) 伯士身寶衆三이 날마다 人夫 都合 348名과 아울러 돌[採石?]만은 다음해 봄철까지 完了하였고 [塔을] 이루지 못한 까닭을 아뢰었음으로 또 貞元伯士가 僧 知漢(郡 禪院에 依止하고 있으며 本貫은 若木郡임)에게 勸하여

太平 5年 3月 12日에 食 30石, 太平 6年 10月 日에 쌀 54石을 바치게 하고 있던 중 더욱 施財物을 모으며

太平 7年 12月 隨願僧侶等 1,000餘人을 戶長 柳瓊은 左徒 副戶長 承律은 右徒의 例로 分析하며 날마다 돌을 運搬하여 이미 끝나치었으므로

太平 9年 7月 日 貞元伯士에게 請하여 이 해 春秋冬을 지나 이 겨울에

31) 해독은 吏讀와 관계있는 부분에 국한하기로 한다. []안은 의미상 보충한 것이다.

石練이 이미 畢하였으며 절은 司倉 우두머리가 記錄을 살펴보니 [그 內容은] 76年前 丙辰年 量田使인 前 守倉部の 藝言, 下典 奉休, 算士 千達 等이 乙卯[955年] 2月 15日 宋良卿의 結을 조사한 導行帳[結稅臺帳]으로써 顯德 3年[956年] 3월에 만든 賃에 代下田은 長이 27步 方이 20步, 北으로는 能石의 밭이고 南東에는 地界가 있고 西로는 葛頸寺의 밭인데 承孔이 [전체가] 540結이고 所得이 49負 4束이고 또 同寺[淨兜寺]의 寺位田인 下田이 南田에 닿는데 [境界] 長이 19步이고 東으로 三步인데 3方은 地內이고 西는 文達의 代田으로 承孔 104結이고 所得은 9負束이다. 右와 같이 量案에 記入되어 있었던 것으로써 地理僧인 延囑(八厓縣法村)에게 立塔基地를 占定시킨 뜻을 [두었다]

郡司 戶長 別將 柳瓊, 攝戶長 金甫, 戶正 成允, 副戶正 李希, 書者 承福 等이 太平 10年 12月 7日 牒[公文]으로 寺代田內에 따당한 곳을조차[따라] 세우기로 보고한 뜻[所志]이 다하였으므로 그날 三寶內庭中에 定한 일의 結果로 12日 正位剛 隊正인 嵩岳, 式英, 一品軍인 作隣 등 21人이 5尺의 石築[도리]를 掘取하여 4方 10尺에 [塔 敷地에, 塔을] 排立시키시오되 玄風縣 北面 觀音房主人 眞甫長老가 모시온 舍利十七口를 京山府 處藏寺 主僧 彥承長老가 이 달 1일에 모시고 到着하신 일이 있으므로(本來 瑠璃筒 1個와 鑰合 1個인데[무게가 2兩이다]) 여기에 잘 맞이하오며 右 文記와 아울러 또 鑰合 1개(무게가 13兩 3目이다)에 맞이하사온 [일이] 있으며

石練時로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天原寺主 大師 靑允, 金剛寺主 大德 釋令, 芳允寺主 重職 廷祚, 禪院主人 懷闡, 道俗寺主 賢朗, 普沙寺主 讓賢, 大乘寺主 彥融, 金莫寺主 元慶, 蓮長寺主 知善, 金安寺主 法眞, 京山府士 等이 各 食 1石, 般若寺主 得名光獻 食 3石, 禪院 [淨兜寺] 依止僧 連育이 米 1石, 副戶長 旨禮 淑宏 戶正 成允 漢器□正 雄憲 眞漢 副兵正 元行 等이 乞供納米 17石 10斗, 志興郎이 麥 1石, 漆匠[칠장이] 信貞이 上京布 30尺, 智奉寺主 大師 旻光이 布 15尺, 副戶長 稟柔가 米 3石 10斗 齋 5回, 麻 1过, 般若寺主 光田, 戶長 柳瓊, 散員 積宜, 禪院[川]寺主人 幸僧 等이 各 麻 1过, 鑰匠 居等達이 鑰合 1個(重 2兩), 副戶長 肯禮 兵正 佑宜, 戶長 柳瓊 神彥, 妙興寺主 覺由, 金剛寺主 般若寺主 蓮長寺主 道俗寺主 禪院主人 天原寺主

磻川寺主 貞宏新 賢采, ○倦寺主 神憶, 副戶長 承律, 副正元白, 知自師 行順男 等이 各 齋 1回, 仙石寺主가 齋 2回, 隊正 式英 齋 4回 戶正 成允 漢器가 함께 齋 1回, 繡帳寶 廉富女 齋 1回, 官吏 元道 洪漢 함께 齋 1回, 桑由師 得賢이 함께 齋 1回, 金昕 英純이 함께 齋 1回 戒人哀 阿召哀內³²⁾ 金富多支 金助烏이 함께 齋 1回, 普沙寺와 忠寺가 함께 齋 1回 奴德積이 一時의 齋, 新達男이 一時齋, 三孝男이 一時齋, 京稱長老 殷述 能光 金漢多支 富助烏 舍富 等이 齋 1回, 酒 2香,³³⁾ 知自, 英純, 戶正 成允 等이 各 떡 1合, 副戶長 賢賢이 술 1香 떡 1合, 允孝 新達이 함께 술 1香, 戶長 神彥이 술 2香, 汁火寺主人 賢京, 玉滿寺主 元京, 陽岳寺主 知黃 等이 各 ○酒와 菜靈, 李言男이 술 1香, 樂人 式長 等여 15人이 茶와 酒과 菜靈, 吉奉男哀 好大娘이 함께 떡 一合, 助烏 皂明이 떡 1合, 술 1香, 量[置?]民哀 助烏가 함께 떡 1合 술 1香, 能名 孝德 英金 明烏 守皂 等이 아울러 술 1香, 用德女等이 술 3斗, 玉滿寺主 英賢, 副正 處忠이 아울러 술 3香, 大內義郎이 30尺 右와 같이 所願에 따라 한 일이 있음.

Ⅳ

위의 解讀을 통하여 우리는 이 文記의 表記에 나타난 몇 가지 特徵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文記는 發願文 部分을 除外하고는 語順이 國語的 語順을 보인다. 「若木郡內 巽方在 淨兜寺」나 「願表爲遣」 등의 例가 그것이다.
2. 吏讀의 發達과 관련해 이 造塔記는 중요한 吏讀의 資料를 보여 준다. 主格의 「亦」, 對格의 「乙」와 語尾 「爲遣」가 처음 나타났고 「令一」이 「是」를 「并」이 「以」를 동반한 것은 이 淨兜寺造塔記에서 처음 보인다. 그리고 興格의 「亦中」과 處格의 「良中」도 그 이전의 吏讀로는 慈寂禪師凌 雲塔碑陰記까지도 「中」만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외에 吏讀의 用例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러한 用例가 別로 후

32) '內'가 뒤의 人名에 붙는 것 같기도 생각된다. 즉 앞의 人名이 '戒人哀'이므로 '阿召哀'일 가능성도 있다. 이 文記의 人名은 앞으로의 考究를 要한다.

33) '香'은 술의 量의 單位인 것으로 보인다.

대에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는 「爲等」, 「已只」, 「令是乎味投」, 「白賜乎」 등이 있다.

3. 이 文記는 虛辭表記가 新羅時代의 吏讀表記보다 精密化됨을 보여 준다. 主格, 屬格, 目的格 表記가 그것이다. 이러한 格助詞의 表記는 新羅時代 吏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造格의 「以」와 處格의 「中」만이 表記되었는데 고려시대의 이두에 와서 「中」은 「亦中」 「良中」으로 表記되어 보다더 精密化된 것인데 이 文記가 그러한 用例를 보여 준다.

4. 이 造塔記에 쓰인 吏讀 用例는 다음과 같다.

加于	亦中
遣	例以
已只	右如
念丁	爲
良中	爲去在乙
令是遣在如中	爲遣
令是白内乎矣	爲内弥
令是白於爲	爲等
令是乎味投	爲弥
弥	爲白弥
白去等用良	爲賜乎事亦在等以
白賜乎	爲在乎事是等以
並以	爲在乎事亦在
不得爲	爲乎事亦在乙
是去	有在等以
是白乎	乙
是内乎味	乙良
是白内口乎亦在弥	乙用良
是白乎矣	以
是不得爲乎	矣
是乎	在乎等用良
如	之段
亦	追于

5. 淨兜寺造塔記에 나타난 虛辭字의 用例는 다음과 같다.³⁴⁾

34) 分類表는 南豐鉉(1975)에서 引用

助 詞：亦 矣 之 乙 中 良 中 亦 中 以 乙 良 (之) 段 己 只 投
 語 末 語 尾：齊 如 亦 在
 連 結 語 尾：遣 彌 乎 矣 乎 味 良 在 乙
 先 語 末 語 尾：白 賜 乎 於 在 內 去
 動 名 詞 語 尾：乎
 接 尾 辭：以 兮 于 是
 繫 辭：是
 副 詞：如 元 不 得 并 以 念 丁 加 于 追 于 至 兮
 動 詞：去 在 了 白 用 良 立 是 一 成 是 一 審 是 一 令 是 一 邀 是 一
 名 詞：等 (以) 事

參 考 文 獻

南豐鉉(1974), “13世紀 奴婢文書의 吏讀”, 論文集 8 檀國大
 _____(1975a), “漢字借用表記法の 「元」字攷”, 國語學 3.
 _____(1975b), “漢字借用表記法の 發達”, 國文學論集 7, 8合輯, 檀國大(國語學論文
 選 7, 民衆書館 1977).
 _____(1981),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法の 發達”, 報告論叢 81-1, 韓國精神
 文化研究院.
 梁柱東(1965), 增訂古歌研究, 一潮閣.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大出版部.
 前問恭作(1926), “若木石塔記の解讀”, 東洋學報 15.
 鮎貝方之進(1934), “淨兜寺石塔造成形止記”, 俗文攷.
 장지영·장세경(1976), 이두사건, 정음사.
 <資料>
 亞細亞文化社(1975), 吏讀資料選集, 韓國學古辭典叢書 11.
 景仁文化社(1984), 朝鮮古蹟圖譜六.